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샘터사람들

2021 겨울호



21037/ 인천시 계양구 경명대로 1011 KT&G 408호 (계산동 935-6)
T.(032)541-4737 / F.(032)541-4738 / <http://www.ever.or.kr>



CONTENTS

- 03 감사인사 / 사랑의집 에덴 원장 김동원
- 04 소망의샘터 소식 /제소자시설 이운안회장님 법무부장관상 수상
- 05 소망의샘터 소식 /소망의샘터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상 수상
- 06 시설탐방 / 장애우시설(사랑의집에덴)
- 07 시설탐방 / 장애우시설(다사랑마을)
- 08 시설탐방 / 제소자시설(파주 샘터사람들)
- 09 시설탐방 / 근육병시설(참조은사람들)
- 10 무료급식 / 내년엔 다시 활기를 찾아 배고픈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 드려야 하겠습니다./백지현
- 11 봉사활동 수기 / 1년만의 기쁨 가득안고 봉사활동 참가♡/권려원
- 12 독거가정 돌보기
- 13 독거가정 돌보기
- 14 각 시설 위치도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처음 코로나가 발생한 후 2년만에 코로나와 더불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with코로나란 완전한 종식이 아니라 코로나를 예방해 나가면서 일상생활을 해 나가야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과 걱정이 많아지네요.

규정이 완화되었지만 그만큼 감염과 많은 위험들로 쉽게 노출될수 있다는게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코로나가 발생되기전에는 저희 사랑의집에덴에 소망의샘터 회장님,선생님,후원자님, 자원봉사자님께서 방문하여 북적 북적하고 끊임없이 행복한 시간들로 채워주셨었는데.., 지금은 오시는 분들이 없네요. 모두 뵙고 싶습니다.

요즘처럼 아무도 오시지 않으니 지난시간이 얼마나 소중한했는지 다시금 깨닫고 식구들과 지난시간을 이야기하며 소중한 추억들을 되돌아보기도 한답니다.

방문객 접촉을 자제하니 아쉬워하며 돌아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에덴 거주인분들은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외부로 나가지도 못하고 매번 똑같은 프로그램들로 에덴 식구들의 일상이 무료하지 않도록 저희는 농업치유라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행해 보았습니다.

에덴의 작은 텃밭에 봄, 여름, 가을 동안 열심히 가꾸어 놓은 작물들을 직접 수확도 하고 알아보고 배우는 시간도 가졌지요.

종사자들과 식구들이 다함께 수확한 작물을 이용해 김치 담그기와 늪은호박 말리기, 천년초 수확, 열매 마 수확 등 체험을 해보고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작은 노력을 하며 지냈답니다."

소망의 샘터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과 희망으로 지난 날들을 버텼고 이 상황이 너무 길지 않기를 에덴의 모든 분들이 기도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시는 소망의 샘터 여러 후원자님!

항상 저희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 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원 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집에덴 원장 김동원





제소자시설 이운안회장님 법무부장관상 수상!

무연고장애인과 출소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쉼터를 제공한 이운안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이 올해 교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무부는 5.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교정 공무원 6명과 교정참여인사 12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교정대상 시상식은 수형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행사이며,

1983년부터 법무부와 서울신문사, 한국방송공사(KBS) 공동 주최로 개최했다.

「대상」을 수상한 의정부교도소 이운안 교정위원은 무연고·장애인 출소자 및 취업 대기 출소자 등이 생활할 수 있는 쉼터(파주 소망의샘터)를 개원하여 숙식을 제공하고, 출소를 앞두고 있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상담, 취업 알선, 생활자금 지원 등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재범방지를 위해 헌신하였다. 이 외에도 출산을 앞둔 수형자 가족을 만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불우 노역수형자의 벌금을 대납하는 등 아낌없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였으며, 지역사회 내 비행 청소년 멘토링 등 적극적인 선도활동을 통해 범죄 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에도 기여한 공로로 인정받았다.

근정상을 수상한 전주교도소 왕현주 교감은 35년간 여성수용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지적장애 미혼모 수용자의 출산을 지원하거나 꾸준히 마약중독 수용자를 상담하기도 했다.

이외에 광주교도소 김승택 교감과 서울구치소 문성권 교감, 진주교도소 김종우 교감, 청주여자교도소 정윤희 전문경력관, 인천구치소 인치건 교감 등이 수상했다.

박범계 장관은 "인권 존중의 처우와 내실 있는 사회복귀 지원 정책을 통해 공존의 정의가 실현되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며 "앞으로도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들이 한 마음이 돼 수형자 교정교화에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기사 출처 대한행정신문 -

이운안 회장님과 최옥숙 원장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묵묵히 걸어오셨습니다.

물론 후원금을 보내주신 선생님들께서 이뤄내신 성과이지만..,

수상의 기쁨은 그동안의 여정이 많이 험란했기에 더욱더 값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를 믿고 후원금을 보내주신 모든선생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의샘터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상 수상!!

2021.7.6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상범)는 인천지역 이웃사랑 나눔 활동에 함께한 기업,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복지부장관 표창, 시장 표창, 시의장 표창, 교육감 표창, 회장 표창 등을 수여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수여했으며,

저희 소망의샘터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상을 받았습니다.

조상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나눔과 사랑, 봉사의 정신이 우리 사회전반에 들불처럼 일어나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는 따뜻하고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으며,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 위해 나눔에 참여해 주신 유공자님들께 감사드리며, 더 많은 분들이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눔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간 후원자님들께서 저희 소망의샘터에 보내주신 사랑과 온정은 장애우시설(2곳), 근육병환우시설 독거노인세대(30가정), 출소자시설 등 어려운 이웃을 보듬고 사회에서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끼니를 거르는 청소년, 어린나이에 홀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난치병어린이, 가족의 해체로 인해 힘들게 생활하는 가정 그리고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 등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소망의샘터는 저희 기관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선생님께 실망을 드리지 않는 소망의샘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후원자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각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 기업과 단체에서
성금과 물품으로 저희 사랑의집에덴 시설식구들과
원장님께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삼양사에서 국수와 부침가루 등의 물품을
(주)화승케미컬에서 사과, 배, 고기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식구들이 좋아하는 바나나등의
과일을 가지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려운 이때 격려와 아낌없는 나눔을 전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식구들 머리도 무뎠어요(^.^) 선생님이 대충(최선
은 다하지만 결과는..^^)잘라 주셨었는데 오랜만에 면허
를 가지신 멋쟁이 선생님들이 오셔서 예쁘게 잘라 주셨습
니다.

식구들 얼굴이 환해 졌어요.^^

감사합니다.



입소자식구들 짐볼과 재활기구를 이용하여 하루 1시간씩
재활운동을 합니다.

코로나로19로 밖의 활동의 제약이 많으니 실내에서 주로
하루를 보내는 식구들은 다툼도 많아지고 한두가지 먹던
약의 가짓수가 점점 늘어 건강의 이상신호도 보이네요.
재활선생님의 구령에 맞춰 열심히 하는 식구들은 치료시간
엔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흐뭇합니다.
현대인에게 운동은 필수 요소인거 같아요.

매주 수요일엔 선생님들이 코로나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할 때마다 코끝 깊숙히 들어오는 면봉이 얼마나
아픈지 할때마다 눈물을...ㅠㅠ
하지만 교사들의 고통이 있어야 식구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진다는 것 또한 저희
선생님들의 사명이라 생각하며 콧물,눈물을 아낌없이
흘립니다.

거주인

나인석 김용우 정대원 박종상 홍우진 한상빈 박현상 성미경 장근수 김준기
김다혜 김소선 성슬기 한지선 신은주 최명란 장보배 최성란 김영자 홍환희
최원희 장향진 그리고 선생님 5명, 원장님과 사모님은 한 해동안 보내주시
격려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아직 끝난건 아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거주인 김기창 홍성일 박병휘 김병곤 정기수 이태규
모화순 권재의 김민혜 박정국 김병곤2 김추자 최상구
정일현 이경순 그리고 원장님과 사모님, 선생님들은 올한
해동안 시설에 보내주신 격려로 잘 지냈음에 감사를 드
립니다.

with코로나 라고 하여 뭔가 생활에 큰 변화가
있기를 기대 했지만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더 심해지고 있어서 너무 걱정입니다.

이 가을날 단풍이라도 보여 주고 싶지만 외출
은 꿈도 못 꾸고 동네 산책하는 것도 동네사람
들의 눈총이 곱지 않아(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신고함) 남들처럼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
니 그야말로 감옥 같은 생활입니다.

우울할 때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이 소망의샘터
에서 맛있는 선물을 보내주셔서 기분이 좋아졌
습니다.

식구들 맛있게 먹으며 나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습니다.

소망의 샘터의 관심과 후원이 얼마나 힘이 되는
지 글로 표현하기 부족합니다.

언제나 감사 드리고 코로나가 종식되어 보고 싶
은 봉사자분들과 회장님 얼굴을 뵈었으면 좋겠
네요.

튼튼히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다사랑마을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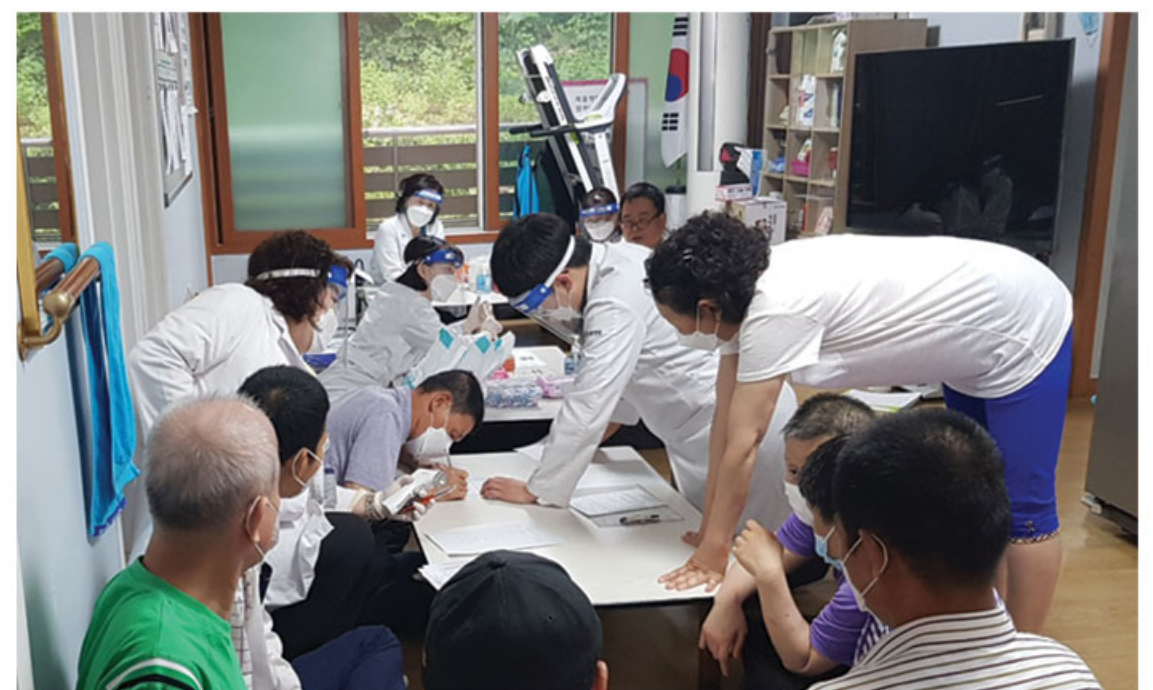
거리를 수놓던 붉은 단풍들은 찬바람에 이리
저리 날려 코로나로 인해 누구도 찾아오지도
관심받지도 못하는 시설의 공기를 더욱더 차
갑게 합니다.

겨울이되니 살길이 더 막막지는 위기감 같은
것은 모두 비슷하지요.

저희식구들에게 매달 소망의샘터에서 보내주
시는 후원의 손길은 생명줄입니다.

샘터의 손길로 인해 다사랑마을 거주 장애인
들은 오늘도 내일도 감사로 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식구들 2차까지 완료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땅 바닥에 떨어져 있는 꽃잎을 보며...,
생명의 절절함을 노래했던 시인의 마음을 아는 듯 모
르는 듯, 여름 내 지고피었던 앞마당 뒷마당의 장미,
백일홍, 천일홍, 금잔화, 상상화 등 말년의 '초라하고
추레한 모습에 사람 나이 드는 것과 다르지 않구나'
싶어 괜스레 우울해지는 하루인 듯 싶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찾는이 없이 빗장을
잠그며 식구들 먹고 살자고 감자, 고구마, 무, 배추, 고추
등 밭 농사를 가꾸며 열심히 지내다 보니 어느새 한해
가 훌쩍 지나 한해의 끝 자락에서 한숨과 걱정입니다.
난방비가 작년에 비해 30% 이상 오르고, 일거리는 점
점 줄고 있는데 모든 물가는 하염없이 오르고...,
고민 끝에 요즈음 식구 몇이서 길거리에서 박스를 주우
며 겨울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동화에 나오는 개미와 베짖이 속에 개미
의 모습으로 그저 하루하루 작업장안에 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누구의 생일이라도 되면 한입에 넣어도 될만한
케익을 놓고 둘러 앉아 행복한 단맛을 나눕니다.



올 해 텃밭에 가꾸어온 고구마, 김장배추, 무 등을 수확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니
큰 일을 한듯 자랑스러워 하며 내년엔 더 많이 잘 지어 보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형제들 지난 과오를 뉘우치며 남을 도울수 있다는 자신감과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추운 이 겨울!!

저희 식구들 가슴이 따뜻한 사람으로 타인을 돌아보고 살피며, 올 한해를 마무리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겨울이 되면 그 누구보다 친절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더욱 귀하게 느껴집니다.
소망의 샘터 후원자님, 회장님을 비롯 봉사자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해동안 정말 많이 감사했습니다. - 원장 최옥숙 -

감사합니다.

거주인

고혁빈 이병태 이경복 김현승 김대홍 서주영 손상열 이신재
박성선 김영칠 그리고 이운안 회장님, 최옥숙 원장은 올 한
해동안 출소자시설에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거주인 한제일 권정혜
그리고 원장님과 활동보조 선생님들은
한해 동안 근육병 환우시설에 관심을 보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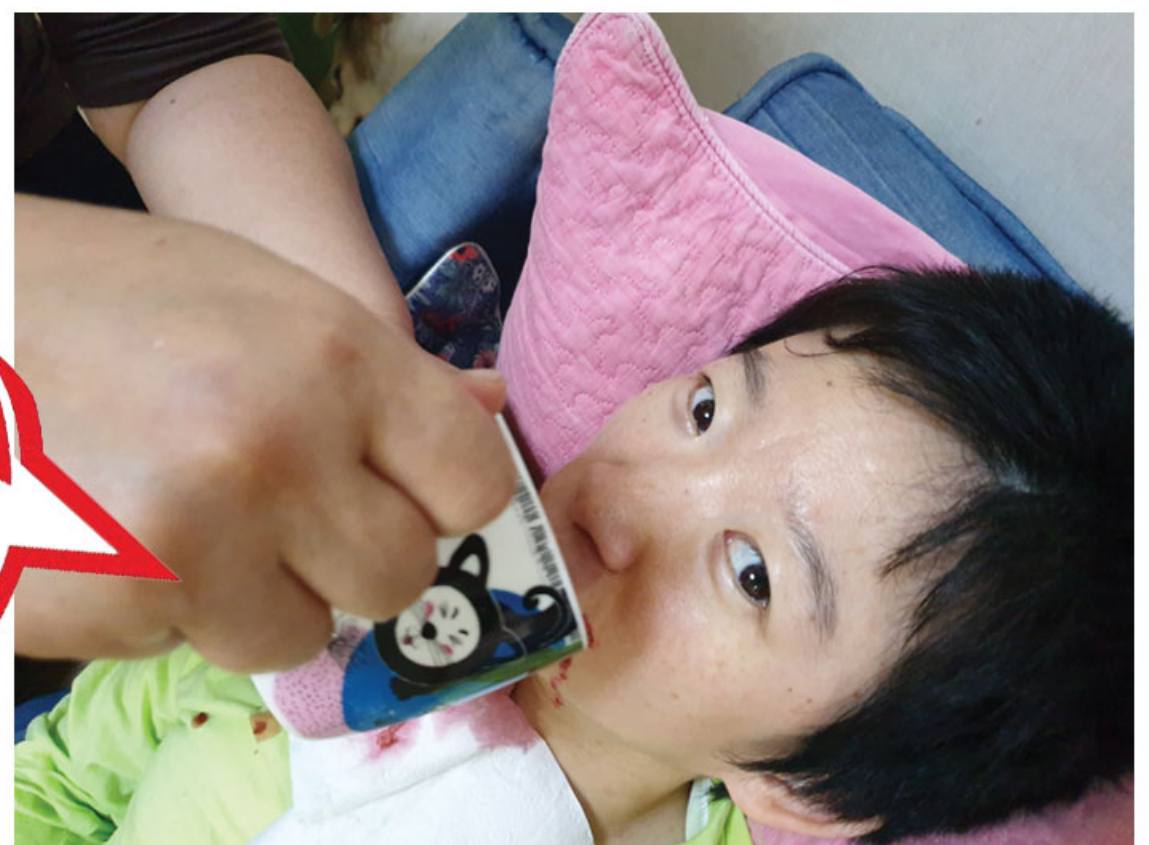
주어진 날씨에도 모두들 잘 지내고 있지요?
여기 참조은 친구에 친구들도 여전하답니다.
정혜누나의 귀여운 갑질도 여전하구요.
제일이의 즐거운 인터넷 생활도 계속 고교랍니다.
다만 제일이의 활동지원 시간이 13로 토막났네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죽지 않으니깐요. ^^
이제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추워질건데 선생님들
교장님과 관계자님들 건강조심하세요.
코로나야 이제 함께 살자 할때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길 바라게요.
참조은 친구 일동

제일이 매일 인터넷에
빠져 지냅니다.
제일이는 인터넷쇼핑몰
아이컨텍시간이 제일
좋다고 하네요. ^^



맛있다!!
까칠한 정혜씨
비트주스를 아주
좋아해요. ^^*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계시는지요.
변함없이 많은 수고와 관심으로 지내고 계실줄 믿습니다.
코로나 19와 더위에 포위된 우리 참조은 친구는 어떻게 지낼까요?
무엇보다 정혜자매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결정이 되었습니다.
거의 외출을 못하고 있는 대신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두사람 늘었어요.
우리 부부와 활동지원사 둘, 합이 넷이서 번갈아 가면서 케어하고 있어요.
성미경 선생님이 수고를 많이줄일 수 있었습니다.
한명 선생님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루 일공시간 함께 집안일을 돕고
또 한 선생님은 토,일,월요일 저녁시간과 야간근무 하루를 해 주십니다.
10년가까운 세월에 아내가 많이 고생했는데 적당한 때에 사랑을 보내주신
자활센터 관계자와 복지부 관계자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소망의샘터 선생님들이야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제일이는 년초에 재심사를 받았는데 현상유지 정도로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제일이 지원이 좀 더 늘면 외출이나 원거리 여행에 도움이 좀 되겠다고 내심
기대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기대해봅니다
아무든 온국민이 다 힘이 드는 시기인지라 힘들다고 하소연 할 수도 없는 요즘 이네요.
샘터 선생님들도 힘내시고 마음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사진은 비트음료를 직접 만들어 마시고 있는데 정혜자매 한잔 하는 중입니다.
다음 즐겁게 만나 볼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코로나-19로 2년 가까이 세상이 멈춘듯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개인의 삶이 부숩졌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고 그동안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수 없었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꼭 막힌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역사나 인생은 예고 없는 작고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위기'란 낱말은 한자로 '위험(危)'과 '기회(機)'라는 두 말이 합쳐져서 이뤄진 합성어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가 때로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변화 시키고 향상 시킬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에서 쉽게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보이지않는 두려움,현실을 극복해 갈만한 용기와 정신, 그리고 진취적인 사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에 만족하고 안주하려는 본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갑자기 작동되지 않는 시스템!

이러한 상황이 바로 위기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국가나 조직이나 개인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지만, 극복하지못하면 모두가 끝장나고 맙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범인(凡人)은 위기를 만나면 도피하지만 신념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날 때, 사건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자세를 고치고 새로운 방법을 찾으며 전환점을 삼습니다.

노숙자 급식 담당
백 지 현



살다보면 인생이 180도 바뀌는 동기가 있습니다. 이를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성공사례를 들어보면 모두가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터닝 포인트가 있다면, 마지막에는 파이널 포인트(Final Point)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파이널 포인트?

이는 마라톤으로 말하면 42,195km를 돌고 마지막 테이프를 끄는, 끝점을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그 끝을 향해서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점,즉 목적이 없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아름답고 선한목표(目標), 선명한 꿈(vision)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with 코로나시대!

우리를 옥조였던 코로나와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소망의샘터에서 무의탁노인들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한지도 어언 3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지 1년6개월이 지났고 이젠 더이상 지체없이 다시 활기를 찾아 배고픈 이들의 고통을 덜어 드려야 하겠습니다.



1년만의 기쁨 가득하고 봉사활동 참가♡

와~1년만의 인사 올립니다.

안녕들 하셨는지요?!!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동안 봉사자로서 활동을 잠시 접은상태 입니다.

가끔 뉴우스를 접하다보면 올 겨울은 많이 춥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저는 무의식적으로 홀로계신 독거어르신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다 혼자 피식 웃곤해요.

제가 기특한 생각을 한것 같아서요. ㅎㅎㅎ

그러던 중 때마침 독거어르신들 김장을 해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을알고 제가 오늘 드디어 김장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김장을 하기위해 야채와 갖은 양념을 맛있게 준비하여 배추속을 넣어 김치통에 옮겨 담을때면 저희 독거어르신들 얼굴이 한분 한분 떠오르는 거예요.

요김치통은 ○○할아버지 요건 ○○할머니꺼 하면서 열다섯분 어르신들 김치를 정성껏 눌러담아 통에 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 댁을 방문하여 김치를 건내드리며 '꼭' 건강하시라고 인사드렸습니다.

오랫만에 만나본 봉사자 선생님들과 함께한 오늘!

소중하고.감사한 지금 이순간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네요♡

역시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건 참으로 행복합니다.



- 봉사자 권려원 -

아직은 거리두리가 필요한 시기지만..., 위드코로나로 인해 모든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곧 다가올 2022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매일 매일이 햇살좋은 따듯한 날처럼 기쁨만이 샘솟길 소망합니다♡

-봉사자 권려원-



어버이날



여름 복날



코로나19로 고립된 노인들!

고립은 일반적인 노인 문제 중 하나이지만 일차적으로 가족, 이차적으로는 노인들이 이용해 오던 사회 서비스로부터 고립 되었습니다.

노인 복지관과 같은 친숙한 사회 서비스뿐 아니라, 경로당, 노인들의 친목 모임까지 중단해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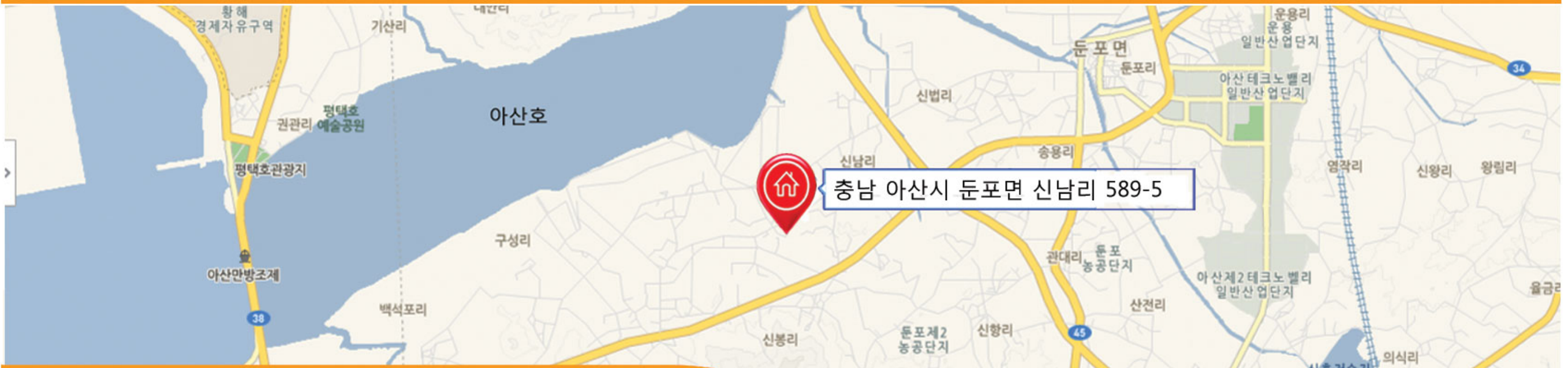
이러한 접근성의 제한은 노인에게 심리적 고립감, 우울감, 소외감 등을 초래했고, 가사 지원과 같은 서비스의 제한으로 생활의 불편함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 불안감, 좌절감 같은 심리적 변화를 낳았습니다.



소망의샘터 각 시설 위치를 소개합니다.

제1기관/(장애우시설)사랑의집에덴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호로840번길 88-49



제2기관/(출소자 및 부랑아시설)파주소망의샘터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 579법원읍 사임당로 579



제3기관/(근육병환우시설)참조은친구

인천시 서구 고래울로38번길 4-16 (해동빌라) 102호



제4기관/(장애우시설)다사랑마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79번길 25



1. 사/랑/의/손/길을 기다립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부모에게 조차 버려진 장애우들은 시설의 원장님, 사모님과 선생님이 세상을 살아내는 데 전부인 장애우 아이들과,
늙고 병들어 누군가의 손길이 절실하지만 누구도 이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아 노후를 많이 힘겹고 외롭게 보내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계십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받아주는 곳이 없어 재범을 되풀이 하는 출소자들과 그들을 위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털어 재범을 막아내려 애쓰는 원장님이 계십니다.
모두가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추위와 외로움, 그리고 지병으로 사는게 고통인 이들에게 살맛나는 세상, 희망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주는데 힘을 보태주세요.

2. 소/망/의/샘/터 회/원이 되시면.

- 소망의샘터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 소망의샘터에 관련된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합니다.
-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의 10%내에선 100%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www.ever.or.kr)을 통해 소망의샘터에서 실시하는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 입/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 무의탁 노인
- 정신 또는 신체장애자
- 보호자가 있으나 여러가지 형편상 위탁이 불가피 하신 분들은 (032)541-4737로 연락주시면 상담 후 입소를 도와드립니다.

4. 기부금영수증 발급

저희 소망의샘터는 기부금단체 관계법령 법령 39 ① 1 마(기부금코드 41)에의거 지정기부금 발급기관으로 발급받은 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국세청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본인 공인인증서(기존 은행용으로 발급받은 것도 사용할 수 있음)로 로그인 하여 간편하게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 확인은 주민등록번호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함.



모두가 행복한 세상
소망의샘터에서 만들어갑니다.



나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며,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후원문의 : (032)541-4737

함께하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후

원

계

좌

국민 : 656501-01-250453

농협 : 387-01-011911

예금주 : 소망의샘터



Ddum 또는 **NAVER**, **ZUM** 등 포털사이트 에서 **소망의샘터** 를 검색하세요.



21037/ 인천시 계양구 경명대로 1011
KT&G 408호 (계산동 935-6)
T.(032)541-4737 / F.(032)541-4738
<http://www.ever.or.kr>

사랑의집에덴



제1기관/장애우 시설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호로840번길 88-49

샘터사람들



제2기관/출소자 시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 579

참조은사람들



제3기관/근육병환우 시설
인천시 서구 고래울로
38번길 4-16
(해동빌라)102호

다사랑마을



제4기관/장애우시설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379번길 25